

# 나를 미워하고 학대하는 길이 정도(正道)

## 반대생활을 할 때 튀어나온 마귀를 죽이는 구세주

이 길은 나라는 의식을 죽이는 길이고, 그러므로 누가 나를 미워하면 고소하게 생각을 하고 나를 미워하면 나를 미워하는 그 순간 도리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마귀가 나를 미워하는 것은 '이 마귀를 이겨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미워하는 사람을 도리어 이제 사랑해주고, 미워하는 사람을 더욱더 좋아하는 그러한 반대생활을 해야 가는 길이지, 이 길은 이제 나를 사랑하거나,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같이 미워하거나, 이제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을 이제 싫어하거나 하면, 이젠 벌써 마귀한테 지는 생활을 하게 되므로, 마귀 노름에 이제 놀게 되니까 바로 마귀에게 지는 거죠?

### 마귀의 목적은 피를 썩히는 것

그러니까 마귀가 미워하게 되면, 미워하는 마음이 나올 것을 알고 미워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나오면 피가 썩고 피가 썩으면 바로 마귀가 자기의 목적이 달성되니까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여러분들 믿어지지 않겠지만, 누가 나를 미워하면 좋아했어요. 그래서 깔깔대고 웃었어요. 그 사람 보는데 웃지 않고, 안 보는 데서 웃었어요. 그래서 "이것 미쳤구나! 괜히 웃는구나!" 하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왜 그렇게 웃음이 나오느냐 하면 바로 나를 미워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그 미워하는 마귀를 이기게 해주시니 너무나 고맙고 감사한걸로 깔깔대고 웃었어요.

### 자신을 이가 갈릴 정도로 미워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반대생활을 해야 이 길을 가요. 나라는 것을 사랑한다든지, 나라는 것을 의식한다든지, 이제 나를 중심으로 해서 생각을 하고 생활

하면, 바로 점점 마귀새끼가 되어가고, 결국 그 사람은 점점 무덤으로 가까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나를 미워하고, 나를 미워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나 하면, 바로 이가 갈리도록 미워해야 돼, 이가 갈리도록. 그래서 이 사람은 이를 갈면서 나를 미워했지 보통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힘든 일을 이 사람이 하면서 너무 힘들니까 쉬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건 바로 마귀가 '쉬어라, 쉬어라' 하니까 쉬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쉬고 싶은 마음이 있는고로 또 쉬지 않고 일을 했다고 했죠? 내가 얼마만큼 미우면 그렇게 했겠어요. 나라는 것이 아주 이가 갈릴 정도로 미운고로, 그러므로 이 사람이 정신을 잃고 쓰러질 때까지 일을 했다고 했죠? 그건 바로 이 사람의 중심사상이 하나님 편에 서서 마귀를 이가 갈면서 미워하고, 이제 일을 갈면서 미워하면 - 마귀는 사람의 생명을 붙잡고 항상 사는 마귀예요 - 계속해서 나를 미워하게 되면 마귀가 사람의 생명을 잡고 있던 마귀가 떨어지게 되고, 그 마귀가 떨어져서 들랑날랑할 때에 구세주가 그 마귀를 죽이는 것이지, 사람의 생명을 붙잡고 있을 때에는 그 마귀를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을 붙잡고 있을 때 마귀를 죽이면 사람도 죽는고로 그러므로 마귀를 죽일 수가 없어요. 아시겠어요?

### 마귀가 떨어져 나오는 순간 마귀를 죽여

그러므로 여러분들 자신이 마귀를 미워하고 이제 반대생활을 해야, 바로 마귀가 떨어져 나가서 이제 자기가 들어갈 집을 찾느라고 나올 때 구세주의 눈에 띄기만 하면 여지없이 작살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구세주는 마귀를 죽이는 데에는 아주 식은 죽 먹기로 쉽지만은 사람의 생명을 잡고 있는 마귀는 죽일 수가 없는



구세주 조희성님

거예요. 사람이 죽으니까. 이 사람은 사람 구원하러 왔어요, 마귀 구원하러 왔어요? 사람을 구원하러 왔죠? 사람 속에 나라는 의식이 사자구신이라는 걸 이 세상 사람들이 알아, 몰라? 이걸 모르고 있죠? 아는 여러분들은 마귀를 계속해서 미워하고 반대생활을 해야만 바로 마귀는 힘이 없어요. 이제 마귀의 뜻과 마귀의 조종함을 따라 움직이면 점점 마귀 신이 강해져 가지고 사람 속에 있는 생명의 영이 되는 하나님의 영을 죽여 버리는 것이옵시다. 그러므로 그 순간 바로 사람이 죽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마귀가 점점 강해지면 이제 기력이 약해지고, 기력이 약해진다는 것은 생명력이 약해진다는 거예요. 생명력이 약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신이 점점 약해져서 마귀에게 죽음을 당하는 경지까지 이르는 거예요.

승리제단에서는 이제 승리자를 키우는 것이지, 여기서 착하고 선한 사람을 키우

는 곳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승리자 강한 영을 키워가지고 바로 마귀를 이겨서 구세주가 되어야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게 되므로 그러므로 이 사람이 이간자 구세주를 키우고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간자 구세주 되는 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렵다고 하는 것은 마귀 입장에서 서서 볼 때에 어려운 것이지, 하나님 편에 서서 승리자 구세주 입장에 볼 때에는 이것처럼 쉬운 것 없어요. 아시겠어요?

### 나라는 의식을 죽여야 이간자

여러분들, 이간자 되는 걸 싫다고 하니까 그렇다고 해서 너무 쉽게 생각만 하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성경에 천국 가는 길은 좁은 길이요, 힘든 길이라고 했죠? 그러므로 천국 가는 길은 나를 완전히 죽여야 갈 수 있는 길이지, 나를 죽이지 않고는 갈 수가 없어요. 아시겠어요? 이 세상에 진짜 도라는 것은 나

라는 의식을 죽이는 것이, 나라는 의식을 이기는 것이, 내 의사가 일어날 적마다 내 의사를 꺾는 생활을 습관적으로 해야, 그래야 바로 이 길을 갈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이 될 수가 있는 것이옵시다. 나하고 무슨 가깝다고 해서, 나하고 이제 가족관계가 된다고 그래서 구원을 얻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각자가 이 길을 가는 길이에요. 아시겠어요? 각자가 이 길을 가는 길이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나와 더불어 싸워서 나를 시간 시간이 이겨야 이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이지, 나를 못 이겨 가지고는 이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바로 이간자가 되면 눈이 떠지고 눈이 떠지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을 알고, 하나님의 이제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도 내다보이고, 사람 얼굴만 봐도 이 사람이 지옥 갈 사람인지 천당 갈 사람인지 얼굴에 써어 있는 게 보이게 되어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러나 전지전능자가 구세주가 되게 있는고로, 그러므로 지옥 가려고 이제 얼굴에 써어 있다고 하더라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죄악을 모조리 해결해주고 구원할 수가 있죠? 여러분들, 여기서 있는 사람을 여러분들이 볼 때에 보통 사람으로 볼지 몰라도, 이 사람은 온 세상의 인류를 일시에 하나님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예요. (성도일동 박수) 일시에 하나님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은 이제 하나님을 만들어봤자 마귀의 공격을 이겨낼 수 있는 저항력이 없는 사람은 다시 마귀가 되어버려요.

### 강자를 키우려고 연단을 시켜

그래서 하나님이 될 때에는 바로 마귀를 이기고 마귀를 죽이고 하나님이 된고로 그 하나님이 된 사람들은 전부 다 승리의 하나님이 되어서 강한 영이 되겠죠?

(예) 강한 영이 됐는데 마귀가 그 강한 영을 꺾고 이제 다시 사람이 될 때에는 그때에는 강한 마귀가 되는 거야, 약한 마귀가 되는 거야? 강한 마귀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그렇게 강한 마귀가 되면은 그 강한 마귀를 없애버리려면 이제 힘들까, 힘이 안 들까? 힘들죠?

그러므로 이 사람이 일시에 사람을 하나님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왜 그걸 안 하느냐 하면 도로 마귀가 될 우려가 있는고로, 다시 마귀가 될 때에는 강한 마귀가 되는고로, 그때에는 다시 그대로 마귀가 된 그런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으로 만들려면 천 명을 하나님 만들 수 있는 힘을 기울여야 그 한 사람을 하나님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지연되겠죠? 그래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대로 여러분들, 계속해서 연단을 받게끔 하는 거예요. 만약에 힘들고 괴로운 일이 있으면 도리어 고소하게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이제 힘들어 죽겠다, 아이구' 해서 점점 약해지게 만들기 위해서 마귀가 한 것인데 힘들고 괴로울 때에 고소하게 생각을 하고 도리어 웃으면은 그 마귀가 완전히 케이를 당하는 거예요. 마귀가 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마귀를 이룬 식으로 이기는 거야. 이게 도(道)지 교회 나가서 기도하고 중언부언 떠드는 게 그게 도(道)가 아니예요.

그래서 완전히 자신의 마음과 싸워서 자신을 이겨내야, 그래야 바로 도통했다가 되고 바로 그래야 하나님이 되었다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말씀을 여러분들 들어보면 바로 과연 이 사람이 어떻게 이간자가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죠?\*

2001년 7월 9일자 말씀 중에서

### [연재] 아브라함 족장시대에서 삼손의 사사시대까지



## 《2장 이삭의 하나님》

# (9) 에서가 삼촌(큰아버지) 이스마엘의 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다

### (9) 에서가 삼촌(큰아버지) 이스마엘의 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다

이삭이 그랄 땅을 떠나 그가 99세 되는 해부터 브엘세바에서 정착하였습니다. 일 년 후에 이삭의 맏아들 에서가 헷 족속<sup>1</sup> 브에리의 딸 유딧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1 헷 족속:** 가나안(노아의 손자, 함의 아들)의 아들 헷으로부터 형성된 족속으로 오래 전부터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던 원주민이었으며, 그 족속을 히타이트 족이라고도 부릅니다(창10:15).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 야곱에게 '헷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일러주었으며 이삭도 '가나안 사람의 딸 중에서 아내를

부모님은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질개봐 격정스러웠습니다.

가나안 땅에 사는 헷 족속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다. 유딧이 하나님을 섬기는 집안에서 며느리 노릇을 하려고 하니 무척 낯설고 적응이 되지 않았습다. 그녀는 시집살이 3년도 채 못 밟고 보파리를 싸고 친정집으로 돌아갔습다. 그리하여 에서는 가끔 친정집을 오가며 생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딧과 결혼한 지 10년, 에서는 오십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그는 아내 유딧을 사랑하고 아들 야곱에게 당부하셨습니다(창27:46, 창18:1).

맛이 하나님을 섬기는 아버지 이삭을 모시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또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살아계실 적에 동족이면서 하나님을 믿는 며느리 리브가를 구하기 위해, 그의 늙은 종을 하란까지 2천 리나 되는 먼 길을 다녀오게 했다는 이야기도 가족들로부터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하여 에서는 어릴 적에 큰아버지 이스마엘의 사랑을 특별히 받았던 일을 기억해내고 하나님을 섬기는 큰아버지를 만나 그의 딸 중에 하나를 아내로 삼게 해달라고 간청할 작정이었습니다.

부모님 이삭과 리브가는 집을 나서서 에서를 전송하면서 축복했습니다.

"하나님의 각별한 은혜로 형 이스마엘이 그의 딸을 너에게 아내로 줄 것으로 믿는다. 아들이야, 네가 아내를 얻게 되거든 거기 혼례를 치르고 일주일간 유숙하면서 너의 큰아버지 이스마엘을 기쁘게 하라. 열둘 마리의 낙타와 예물이 준비되었으니 종들과 함께 무사히 다녀오너라."

50살의 에서는 브엘세바를 떠나 바란 광야에 도달하니, 그곳에 아브라함의 후처 그두라가 낳은 미디안의 형제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미디안 형제들은 낯익은 에서를 보자 소년시절에 같이 활을 쏘며

사냥하던 때를 떠올리며 반갑게 맞이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에서에게 "이스마엘은 30여 년 전 이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남쪽으로 내려갔으며, 지금은 흉해 연안에 위치한 메카에서 살고 계신다."라고 전했습니다.

에서가 브엘세바에서 메카까지 장장 2천5백 리를 여행할 때에 길 중간중간에 그두라가 낳은 아브라함의 자손들과 이스마엘의 자손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행선지로 가는 데 크게 불편함을 겪지 않고 지름길로 쉽게 찾아갈 수 있었습니다.

### 창세기 25장

1~2절: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욱산과 므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12~16절: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웃이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앓브엘과 밍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맛사와 하닷과 데마와 여들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열두 지도자들이었다라

마침내 메카에 들어선 에서는 잠잠(Zamzam) 우물에서 어떤 오누이가 항아리에 물을 채우기 위해 두레박질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에서가 삼촌 이스마엘의 집을 찾기 위해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지, 처녀는 히잡(스카프)으로 얼굴을 가렸습다.

그래서 에서는 처녀의 오라버니에게 물었습니다.

"저는 저 멀리 북쪽 가나안 땅의 브엘세바에서 왔으며, 이삭이 낳은 아브라함의 손자 에서입니다. 지금 큰아버지 이스마엘의 집을 찾습니다."

에서보다 서른 살이나 더 많은 사촌 형 느바웃은 이스마엘의 집을 찾는 길손이 누구인지 한 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 길손은 살결이 붉은데다가 온 몸이 털투성이여서 열셋 살 때의 '에서' 그 모습 그대로였기 때문입니다.

"에서야, 나를 자세히 봐. 이스마엘의 장자 느바웃이야. 우리가 바란 광야에서 낙타를 타고 질주하면서 사냥하던 때를



잠잠 우물가의 오누이와 에서

기억할 수 있겠나?" "사촌 형을 여기서 만나니, 나의 소원을 들어주시려고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평탄한 길을 열어주셨음에 분명합니다."

"평소에는 누이동생 마할랏 혼자서 물동이를 머리에 이고 우물가로 가는데, 오늘 특별히 누이동생을 따라 나온 이유가 있지. 어젯밤에 잠잠 우물가에서 마할랏과 내가 돌아가신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만나는 꿈을 꿴기에 반가워서 이렇게 나와 본 거야. 에서야, 네가 여기 찾아온 목적은 분명히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으며 너의 바라는 소원이 성취될 것인데, 자, 여기 우물에서 손발을 세정하고 저 위에 있는 카바 신전에 들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께 너의 소원을 기도한 후 너의 삼촌 이스마엘을 뵈자구!" (다음호에 계속)\* 안젤라



그두라가 낳은 미디안의 형제들이 사는 바란광야 \_ 출처: https://alchetron.com/Joseph-Austin-Benwell